



[뉴스] AZ 백신 결국 고령자에 접종 최종판단은 의사에게 02



Economy

코스피	3100.58 (0.00)	코스닥	964.31 (0.00)
금리 (미국 3년)	0.995 (+0.005)	환율 (원-달러)	1107.00 (-9.60) (10일)

증시 '숨고르기' 국면 백신·부양책 등 관건

'배터리戰' 2라운드 2조원대 합의금 격차

설 이후 증시 어디로

코스피지수가 31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나타날 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전과 다르게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설 연휴가 끝난 후에도 회복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가격부담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계속되는 기업들의 실적발표도 눈여겨 봐야 한다.

◆'동학개미' 어디로... 약해진 시장동력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설 연휴로 3일만 거래된 지난주(8~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주보다 0.64%(20.05포인트) 하락한 3100.58에 거래를 마쳤다. 한동안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미국 '게임스톱' 대란은 진정된 모습이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과 달리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65조2489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2일(74조4559억원)과 비교하면 20거래일 만에 약 9조2070억원이나 떨어졌다.

코스피 단기급등 따른 조정 예고 전문가들, 장기적 상승 한목소리 에너지·車 등 주도주 업종 주목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 살펴야

시장 거래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1~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9조8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26조5000억원)보다 약 25% 감소했다. 지난 10일 거래대금은 18조3000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유동성이라는 시장의 자체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 결과 코스피지수는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 없이 3100선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아직 3200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코스피 하루 평균 변동률은 2.6% 수준이었으나 이달엔 1.9%까지 감소했다.

◆단기 조정은 계속... 상승세는 여전 설 연휴 이후 단기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그래도 전망은 밝다. 숨고르기가 끝나면 다시 상승추세가 나타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시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데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등요인이 모이기까지 시간이 필



지난 10일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회복하며 3100.58에 거래를 마쳤다. /뉴스시스

요한 만큼 조정국면은 설 연휴가 지나더라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증시가 급하게 올라오며 펀더멘털(기초체력)과의 괴리가 벌어져 있다. 높은 가격에 대해 투자자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 재상승의 국면이 예상된다. 정 센터장은 "3월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계절적으로 줄어들고 4월에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1조9000억 달러의 경제 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가계에 돈이 풀린다"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センチ먼트와 경제지표가 올라가면 증시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국내 증시는 올 초까지 빠르게 올라갔던 상황이라 조정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조정"이라며 "설 이후에도 달라질 것은 없어 추세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과 물량 소화 과정이 지나면 다시 증시는 올라간다"고 했다.

◆업종선별 중요... 4분기 실적발표 주목 지금 같이 지수 상승속도가 둔화할 때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익 대비 떨어지는 업종들이 투자 대상이다.

배한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은 지수 상승 속도 완화에 따른 업종 선별이 중요해진 시기"라며 "단기적으로는 지수 상승 속도가 둔화하며 이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 개선보다 주가 상승이 부진한 철강과 금융, 필수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을 이끌 수 있는 화학, 에너지, 자동차, IT하드웨어, 반도체 등 기존 주도업종에 주목하라"고 설명했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내 상장기업의 2020년 4분기 실적시즌도 잘 살펴야 한다. 깜짝 실적(여닝서프라이즈)이 이어지며 영업이익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종목들이 연말 전망치 80%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전망치 달성률은 92.8%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규모는 18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보다 높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ITC "SK 배터리 10년간 수입 금지" 효력 발휘 전 금지명령 해소시켜야 '친환경 강조' 바이든 비토권 기대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하던 '배터리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결국 패소하며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또 이미 판매 중인 가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에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더불어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60일 내 국제무역위원회 판결 관련 미국 시장에서 SK이노



SK이노베이션 미국 조지아주 제1공장.

베이션의 영업활동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은 판결 60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발휘되기 이전 수입금지 명령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에 최선의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의 수입금지 명령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ITC의 판결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의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 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일자리 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2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며 수도권 영업 제한도 밤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뉴스시스

서민 물가부담 느끼는데... 식품업계 '배당잔치'

식품업계, 역대 최대 실적에도 즉석밥·제과 등 제품가격 인상 실적호조 바탕 배당금도 올려

연초부터 식품 가격 인상 행렬로 서민들 부담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식품업계는 제품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즉석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은 이달 말 '햇반' 가격을 6~7% 올릴 계획이다. 오투기도 설 연휴가 끝난 뒤 '오투기밥' 가격을 7~9% 인상하기로 했다. 동원F&B은 이미 지난달 '썬룩' 7종 가격을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1% 올렸다. 쌀 가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격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업체들은 즉석밥 외에도 원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목캔디와 찰떡파이의 가격을 평균 10.8% 인상했으며, 롯데칠성음료는 일부 음료의 편의점 납품가를 인상했다. 대상은 지난해 5월 증가집 '시원갈곰포기김치' (3.3kg) 가격을 5.7% 올렸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포기배추김치'

(3.3kg) 가격을 3% 인상했다. 코로나19로 부진을 겪은 타 사업부와 달리 식품업계는 코로나 수혜를 입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 같은 가격인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다수의 기업이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배당금 인상까지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2020년 결산배당금(보통주 기준)을 전년보다 500원 늘린 4000원으로 책정했다.

(4면에 계속) /조효정 기자 princess@